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4. 9. 17.(화) 09:00

과기정통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석

- 기초연설에서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 홍보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실효적 감시 및 투명한 정보공개 강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9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 중인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개막식 당일 9월 16일(월) 12시 5분(현지시간) 기초연설에 나섰다.

국제원자력기구 178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정부대표단 등 2,800여 명이 총회에 참석하였다. 유상임 장관은 수석대표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북한의 핵안보 위협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유상임 장관은 원자력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유연하게 조화 가능한 소형조립식원자로(SMR)의 개발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국은 소형조립식원자로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하여 민간과 함께 기술개발부터 실증까지 추진하고, 새로운 규제기준 마련과 인력양성 등 소형조립식원자로 중심의 원자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로운 모형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안전한 원자로 운영 경험과 차세대 원자력의 기술과 기법을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국제원자력기구가 실효적 감시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 확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정부 의지도 표명했다.

유상임 장관은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면담(9.17(화), 현지시간)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방류 감시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지속 참여시킬 것을 강조하고, 한국의 유능한 원자력 전문가들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진출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총회 기간 동안 ▲미국, ▲영국, ▲스웨덴, ▲모로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주요 원자력 협력국 및 잠재적 수출 대상국 수석 대표와 면담을 통해 소형 조립식(모듈)원자로 등 선진원자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 협력기반 강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부대행사인 기술전시회에서 “대한민국의 소형 조립식(모듈)원자로 설계 및 제조 역량”을 주제로 한국 전시관을 개관하여 178개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 정부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소형 조립식(모듈)원자로 설계 및 제조 역량과 현재 개발 중인 해양 소형 조립식(모듈)원자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우리나라는 60여 년간 원자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원전 수출 확대,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원자력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협력팀	책임자	팀 장	신은경 (044-202-4650)
		담당자	사무관	홍재표 (044-202-4651)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정부 ☎ 129 / www.e-gen.or.kr



□ 참가개요

- **(목적)** IAEA 총회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원자력 정책·기술 홍보를 통한 한국 영향력 확대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공조 요청
- **(기간/장소)** '24.9.16(월) ~ 18(수) / IAEA 본부(비엔나국제센터)
- **(대표단)** 과기정통부 장관(수석대표), 원안위원장, 외교부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63명

* 원자력연구원장, 원자력의학원장, 원자력통제기술원장,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 한전기술 본부장,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 주요활동(안)

- **(기조연설)** 한국의 원자력 정책 소개,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
 - ▲IAEA 기여, ▲원자력 정책·활동 소개,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 ▲日 오염수 방류, ▲북핵문제, ▲우크라이나 원전, ▲IAEA 헌장 제6조 개정** 등
- *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제도 및 규제활동 등을 IAEA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하는 것으로, '14.12월에 1차 수검 완료
- ** IAEA 이사국을 현행 35개에서 43개로 확대하고 모든 회원국을 8개 지역그룹 중 하나에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발효 시 한국이 상임 이사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
- **(양자면담)** ①IAEA, ②미국, ③영국, ④오스트리아, ⑤스웨덴, ⑥폴란드
- **(기술전시회)** '대한민국의 SMR 설계 및 제조 역량'을 주제로 SMR 혁신 제조기술(두산에너지빌리티)과 해양 SMR BANDI(한전기술) 전시

□ 기타 활동

- **(부대행사)** ①하나로 연구로 국제연구로센터(ICERR) 재지정 현판식, ②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 정책 포럼

□ 한국관 전시 개요

- **(목적)** 총회 기간 중 IAEA 회원국 대상 우리나라의 우수한 SMR 설계 및 제조 역량을 강조하고, 한국이 개발 중인 해양 SMR을 소개
- **(일시/장소)** '24.9.16(월) ~ 20(금), C빌딩 1층 원형홀(C11, C12)
- **(주제)** 대한민국의 SMR 설계 및 제조 역량: 해양 SMR BANDI 및 SMR 혁신 제조기술
 - ※ 선박 탑재형 소형 원자로는 IAEA 사무총장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25년도에 사무총장 역점 사업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 **(구성)** △SMR 혁신 제조기술 소개 영상을 포함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전시 △BANDI 모형, 선박 모형, 홍보 판넬, 슬라이드 영상 및 인터랙티브월 등을 활용하여 BANDI 핵심 기술 소개



□ 개막식 식순(안)

- **(일시/장소)** '24.9.17.(화) 12:30~12:45 / C빌딩 1층 한국관(C11, 12)

시간	내용	비고
12:30~12:31(1분)	개회 및 전시관 소개	(사회) 원자력협력재단
12:31~12:36(5분)	전시콘텐츠 소개 ①SMR 설계·제조역량 소개 ②해양 SMR BANDI 소개	(설명) ①두산에너지빌리티 ②한전기술
12:36~12:39(3분)	전시콘텐츠 전반에 대한 소감 청취	(소감) IAEA 사무총장
12:39~12:41(2분)	PACT 기부금* 전달식	(전달) 장관님 → IAEA 사무총장
12:41~12:43(2분)	기념사진 촬영 및 폐회 선언	(촬영) 장관님, IAEA사무총장 개막식 참석 고위급 인사

* 국내외 암환자 치료를 위해 국내기관 대상으로 모금한 기금 일부를 IAEA 암치료 사업인 PACT(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에 일부 기부 중 (2만불)

참고3

국제원자력기구(IAEA) 개요

□ 설립개요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57.7월)된 UN 산하 국제기구로, 한국은 창립회원국('57.8월 가입)
 - (역할) ▲ 핵 비확산 검증 및 감시, ▲ 핵 안전 및 보안 강화, ▲ 기술협력 및 지원, ▲ 연구 및 정보 제공, ▲ 국제협력 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
 - (구성) 178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이 중 35개국이 이사국으로 의사결정에 참여

□ 조직도 ※ 사무총장 아래 6개 부(Department)와 27개 국(Division), 8개 실(Office)로 구성

- (총회) 매년 9월 IAEA 본부에서 개최되며 본회의, 전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진행
- (이사회) 매년 3·6·9(총회직전 및 직후), 11월 등 5회에 걸쳐 개최

